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**2019. 10. 19.(토) / 총 1** (본문1)
국토교통부	건설산업과	담 당 자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정태현 • ☎ (044) 201-3538, 3541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

□ 월례비 지급 등 **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조성**하기 위해 **지난 6월 17일 노사정 상생 협약**을 체결한 바 있으며,

* (참석) 국토부, 한국노총, 민주노총,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

○ 상생·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**올해 연말까지** 국토부 산하 소속 및 산하기관 **공공 건설현장 915개소** 대상 **노사정 합동 캠페인**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□ 또한, 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**갈등해소센터를 설치**하고, 현안 발생 시 **세부 추진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한 **노사정 협의체도 2~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개최**하고 있습니다.

□ **이에 따라,** 월례비 근절 등 공정한 현장 분위기 조성 필요성에 대한 **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**하고 있습니다.

□ **국토부는** 앞으로도 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**지속적으로 관리감독**하고, **노사정 협력체계를 강화**해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0.19.) >

◈ 없앤다던 '타워크레인 상납금' 여전히 판친다

- LH공사 현장 117곳 중 72곳서 241명에게 매달 10억원 지급
- 6월 노사정 '근절 협약' 맺었지만 '보여주기식 이벤트'로 확인된 셈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정태현 사무관(☎ 044-201-35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